명상·사찰음식·클래식이 주는 평안

마하사, 6월 1일 명상음악회
연제구청 웰니스 사업 연계
15일엔 사찰음식 테라피 비롯
명상음악회 한 차례 더 열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최초 사찰 마하사가 개최한 '명상음악회 희로애락(喜怒哀樂)'에서 주지 정산 스님이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5세기 아도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부산 최초의 사찰로 꼽히는 마하사가 명상과 사찰음식 테라피, 음악회를 엮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마하사(주지 정산 스님)는 6월 1일 경내에서 '명상음악회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개최했다. 명상음악회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겪는 모든 감정을 음악과 명상으로 풀어보는 자리로, 첼로와 바이올린, 피아노 등 관현악 악기로 구성된 클래식 공연이 진행됐다.

음악회는 기쁨, 분노, 사랑, 즐거움을 주제로 바흐 G선상의 아리아,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주제가, Fly me to the moon 등 익숙한 곡이 공연됐다. 연주는 김태윤 글로벌문화예술콘텐츠협회 대표, 이현우 바이올리니스트, 이주연 첼리스트가 함께했다. 부산 각지에서 방문한 시민들은 사찰 곳곳에 자유롭게 자리를 잡고 앉아 공연을 감상하며 '희로애락'이라는 주제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졌다. 각각의 공연마다 태전 스님은 스스로 감정을 알아차리고 일상에서 힘든 감정도 수용하며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주지 정산 스님은 "이번 음악회는 명상으로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리다. 특히 음악을 클래식으로 선정한 것은 종교인 간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라며 "연제구 체험형 웰니스 관광 사업인 이번 마하위크가 3회를 맞았다. 더 많은 시민들이 온전히 편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산 연제구와 연계해 진행하는 마하위크는 6월 15일까지 이어진다. 마음챙김 명상이 상시 운영되며, 종교나 철학 등 지식 위주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명상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 밖에 사찰음식 테라피와 명상음악회는 오는 6월 15일 마하사 경내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2024 마하 위크'는 휴식이 필요한 부산시민과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당일 '노쇼(no-show)' 방지를 위해 소정의 참가비(테라피 5000원/명상음악회 3000원)가 인당 발생하며, 참가자에게는 다과와 음료가 제공된다.

한편 마하사는 부산 최초의 사찰이자 국내 최초 나한도량으로, 임진왜란 당시 사찰 건물이 모두 전소됐으나 18~19세기 단계적으로 복원해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다. 부산 연제구청이 지정한 연제구 8경에 속하며 역사적 상징성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불자는 물론 많은 시민들을 위한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010-3155-1011

영축총림, '호국보훈의 달' 추모물결 만든다

통도사, 6월 15일 위령재 봉행
설법전서 법요식…추모음악회도
육군병원으로 쓰인 사찰 역사에
2022년 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


2022년 봉행된 제1회 호국영령 위령재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5일 경내에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 제3회 호국영령 위령재 및 추모음악회'를 개최한다. 통도사는 지난 2022년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현충시설로 지정받아 이를 기념하고 위령재를 거행해 한국전쟁 중 산화한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호국영령 위령재는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 법요식으로 문을 연다. 오전 11시 대웅전 앞마당 무대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자 영산 스님을 단장으로 한 어산단의 위령재가 이어진다. 추모음악회는 오후 1시 삼성반월교 옆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군악대의 공연으로 시작해 성악가 김재섭, 전통 음악의 요소를 팝과 혼합한 '조선팝'의 창시자 서도밴드가 출연한다.

통도사는 2019년 9월 26일 경내 용화전 미륵불의 복장물을 조사하던 가운데 '미륵불좌상조성연기문'을 발견했다. 이 연기문에는 "6·25 전쟁으로 군인들이 법당 등을 훼손시켜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그중 용화전의 훼손이 상당하여 1952년 '미륵불'을 다시 조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간 구전을 통해 통도사가 6·25 전쟁 당시 육군병원으로 쓰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왔지만 실질적인 근거가 없던 상황에서 발견된 연기문이다.

이와 함께 대광명전 내에서 치료받으며 머물렀던 군인들의 흔적(필적)이 발견되었고, 이 낙서에는 당시 전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림과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통도사 육군병원 분원에서 치료받은 상이군인들과 유가족들이 잇달아 증언을 보탰다.

이에 통도사는 2020년 1월 17일 국방부와 육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에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증언과 자료를 취합한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증명 활동을 전개했다. 이로써 그해 12월 17일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분원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받고, 2022년에는 국방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받았으며, 10월 심의 과정을 거쳐 11월 1일 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 지정 통보(지정서 별첨)를 받았다.

통도사는 "1377년의 역사를 품은 신성한 종교시설이 군사시설로 이용되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한국불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였을 때 당시 통도사가 국난 위기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면서 호국불교를 실천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韓中日 삼국 소설 속 불교는?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대종사)이 6월 2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한·중·일 삼국의 소설에 나타난 불교'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학술대회는 △불교철학의 문학적 형상화-김동리와 이청준을 중심으로(유창민/동의대) △'금병매' 속에 나타난 불교연구(이서현/한국해양대) △일본 근대 소설 속의 불교-단편소설의 귀재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작품을 중심으로(이정희/위덕대)'가 발표됐다.

유창민 교수는 한국문학이 불교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했는지 발표했다. 이어 김동리와 이청준의 소설을 통해 현대 소설이 불교철학을 수용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방법을 안내했다. 유 교수는 "김동리 소설에서 현실세계 좌절 이후 불교에의 귀의라는 서사적 흐름은 구원의 삶을 추구하는 김동리 문학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교수는 인간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소설 '금병매' 속에도 불교적 요소와 불교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교수는 "불교적 색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나아가 작품 속에 스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통해 불교의 세계관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상경찰서 경승실, 탱화 점안법회

매월 한 차례 정기법회 봉행키로



부산 사상경찰서 경승실(경승실장 성문 스님)이 5월 30일 경승실 법당에서 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지난해 12월 개원한 경승실 법당은 이번 탱화 점안으로 불사를 마무리하고,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정기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탱화 점안 증명은 옥천사 회주 청강 스님이 맡았다. 이 밖에 경승실장 성문 스님과 경승 법경 스님(광명사), 은적 스님(관음사), 향공 스님(견강암), 자륜 스님(낙은사), 탱화 불모 도안 스님 등 40여 대중이 함께했다.

경승실장 성문 스님은 "탱화 점안으로 법당 불사가 마무리됐다. 정기법회를 통해 경찰과 시민의 안정을 위한 기도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16회 생명나눔 부산 백일장 시상

중 · 고등부 산문 · 운문 나눠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가 6월 2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9층 문화홀에서 제16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200여 학생들이 참가한 백일장에서 대상은 고등부 산문 서민하(혜화여고2), 운문 권동훈(해동고2), 중등부 산문 정윤슬(해동중1), 운문 김준호(동해중3) 학생이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생명나눔 부본부장 자인 스님, 운영이사 법경 스님을 비롯해 백명숙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정경연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처장, 차달숙 한국문학산문 총괄본부장, 박혜숙 부산문인협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자인 스님은 "백일장에 참가해 열정과 진심을 담아 글을 적고 훌륭한 작품을 남긴 학생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갑자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반야심경』 공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

원영 스님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출간 기념 북토크

6월 14일(금) 저녁 7시
우리 시대 가장 친절한 불교 멘토 원영 스님의
내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반야심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시 : 6월 14일(금) 19:00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조계사 경내)
참가 신청 :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https://url.kr/l8co6w (하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문자 접수 : 010-5761-9417 (이름 및 참석 인원 필수)
문의 : 불광출판사 02-420-3200

출간 직후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원영 스님의 반야심경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원영 지음 | 304쪽 | 18,000원

"드디어 나왔다!"
『반야심경』이 궁금했던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흥미진진한 『반야심경』 강의!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